

윤성빈 “컨디션 최상, 결과로 말하겠다”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스타 윤성빈(25·강원도청)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윤성빈은 8일(1, 2차 시기)과 9일

세계선수권대회 출사표...첫 우승 도전 現세계랭킹 2위...결과 따라 1위 수성도

(3, 4차 시기)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리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 2019에 출전한다.

세 번째 세계선수권 참가다. 2015, 20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두 차례 대회를 치렀다. 2015년 빈터베르크 대회 8위, 2016년 인스부르크 대회에서는 2위에 올랐다. 올림픽과 월드컵 정상을 밟은 윤성빈이지만 아직 세계선수권 우승은 없다. 최근 휘슬러에서 열린 두 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한만큼 자신 있는 트랙에서 우승을 노린다. 윤성빈은 “이번 시즌 열심히 준

비한만큼 말보다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세계선수권에 초점을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해왔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 맞게 현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에 대해서는 “휘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랙이며, 유럽 트랙에 비해 무박한 트랙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과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랭킹 2위인 윤성빈은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뉴스스



‘전설’ 이동국, 각종 기록 갈아치워 우리 나이로 41살...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서 밀리지 않아

전북 현대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은 여전히 뜨겁다. 우리나라로 마흔살이 됐지만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원숙해진 플레이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보태고 있다.

이동국은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에 선발로 등장했다. 대구FC와의 K리그 개막전(3월1일)에 교체로 나선 이동국은 이날 처음부터 최전방을 책임졌다.

후반 3분 이동국은 아시아 축구계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 한교원의 패스를 받아 넘어지면서 마무리했다.

직접 결승골을 넣고 김신욱의 썬킥까지 도운 이동국은 후반 31분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베테랑의 힘을 제대로 선보인 이동국은 “우리가 준비한 경기를(K리그) 개막전에서 다 보여주지 못해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경기했다. 빌드업 등이 지난 경기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정상권 기량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특기해야 한다. ‘축구도사’ 라도 된 듯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공격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역시 각종 기록을 갈아치

울 태세다. K리그 통산 215득점, 75도움을 기록 중인 이동국은 공격포인트 10개를 추가하면 300 공격포인트를 달성하게 된다. 80(통산 득점)-80(통산 도움) 클럽 가입도 목전에 왔다. 두 부문 모두 K리그 최초다.

트레블을 노리는 전북의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끄는 것 역시 그의 몫이다.

챔피언스리그 기록 경신도 현재 진행형이다. 베이징전 특점으로 이동국은 챔피언스리그에서만 37골을 기록, 대안(수원·36골)을 넘어 역대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등극했다. 대안의 소속팀 수원이 올 시즌 대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이동국은 격차를 넓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동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닌 마지막에 웃기를 희망한다. “어차피 깨질 기록이다.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다”는 이동국은 “지금보다는 은퇴하는 순간에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나아가 “선발 이득 교체로 나가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100%를 다 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준비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즌을 치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기대주’ 이강인, A대표팀 승선하나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18·발렌시아)이 성인대표팀에 승선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6일 “최근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에 대표팀 소집 가능성을 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A매치를 위해 선수를 부르려면 보통 전에 소속 구단에 알려야 한다. A매치는 ‘의무 차출’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소집을 요청하면 구단은 반드시 선수 차출에 응해야 한다.

이강인은 예비 개념으로 선발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최종적으로 이

강인을 선발할 경우, 차출에 응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스페인 국왕컵, 프리메라리가 등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고, 올해 1월에는 1군으로 정식 등록했다.

아시아컵 이후 유럽파를 점검하고 있는 벤투 감독은 스페인에서 이강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호는 오는 22일과 26일 볼리비아, 콜롬비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한다. 대표팀 명단은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강인이 A대표팀에서 역사적인 데뷔전을 치를지 관심이 모인다.

뉴스스



광양시, 대한볼링협회장배 남녀 볼링선수권 개최 오는 28일까지 23일간...전국서 80개 팀 1000여명 참가

광양시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2인조 볼링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월드볼링장 등 3개의 볼링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광양시청 볼링팀을 비롯해 초중고대학교와 남녀 일반부 등 전국에서 8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는 일반부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개인종합, 마스터즈로 진행되며, 남자 일반부와 대학부는 월드볼링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또 여자 일반부와 대학 고등부는 가이볼링장, 초등부와 중등부, 남자 고등부는 메카볼링장에서 각각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2020년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선발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5일 대한볼링협회장 김길두 회장은 본 대회 개최식을 갖고 2019년 볼링 국가대표를 이끌고 갈 지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볼링

발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자 국가대표에는 조성현 감독, 추재준 코치를 여자 대표팀에는 강대연 감독, 박진희 코치, 주니어 대표팀은 박현 감독과 윤희경 코치가 임명됐다.

특히, 광양시청 볼링팀(감독 이춘수)은 15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최복음 선수를 비롯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여 올해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최복음 선수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12명이 출전한 가운데 16,806점(72경기, 평균 233.4)의 성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중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광양시와 광양시체육회, 광양시볼링협회(협회장 안영현)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15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KIA “주말 시범경기 입장권 팝니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9 KBO 시범경기 주말 경기(16~17일 NC전) 입장권을 판매한다.

시범경기 이틀 전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와 전화(1588-7890)로 가능하다. 현장 판매는 1~3매표소에서 이뤄지고, 경기 개시 2시간 전인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5000원, 중고 등학생 3000원이다. 초등학생 및 장

애인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수령해 입장해야 한다.

시범경기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챔피언스필드와 테이블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이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스카이버스와 외야석, K3석은 개방하지 않는다. 평일 시범경기에는 무료료 입장할 수 있다.

한편 KIA는 16일 경기에 한해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함께 하는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경제·정보·문화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칠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